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Why Is Life So Unfair?

발간사 / 4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 7

믿음의 사람이 부른 슬픈 노래 9

아삼이 좌절한 이유 15

아삼의 반응의 문제점 26

아삼이 해결책을 찾은 곳 37

아삼이 갈등을 통해 얻은 교훈 53

영원에 대한 답 찾기 60

표지 사진 : 신상균의 "창덕궁 부용정"

신앙 성장 시리즈 36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Why Is Life So Unfair?

© 2003, 2004 RBC Ministries,
Grand Rapids, MI, Printed in USA.

인 쇄 : 2011년 6월 25일
 발행 : 2011년 6월 26일
 감 수 : 김상복
 번역 : 유수지
 교 정 : 강희숙 / 신영균
 편집 : 신영균
 발행인 : 김상복
 발행처 : 한국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쇄처 : 소망사
 (02)392-4232



인생에 정의가 있는가? 인생은 공정한가? 때로는 인생에 정의가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으나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지배적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온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목격할 때 “왜 나는 실망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 경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중앙에 있는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라는 분도 그 옛날에 불평, 불만,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우리의 심정을 그 분은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실망과 분노와 의심을 다 쏟아내며 대답을 찾아 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인생의 미스터리가 해결됩니다. 이 작은 책자에 손에 받는 분마다 묵상하며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더 해 줄 것입니다. 읽고 나서 도움을 받았으면,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분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상복 목사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시편 73편의 이야기



인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는 “착한 일을 하다 보면 꼭 욕을 먹는 법이야”라고 비꼬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삶의 고비 고비에 불거져 나오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마음이 쓰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만사가 다 불평등하고 불공평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불공평한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을 버릴 뻔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RBC 『오늘의 양식사』의 교회사역 담당자 빌 크라우더가 삶이 불공평한 것을 보면서 믿

음을 저버릴 뻔했던 한 사람이 겪었던 갈등과 그 끝에 얻은 행복한 결말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갈등으로부터 행복한 결말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들



우리는 날마다 저녁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 한 어머니는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가 방금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법정 밖에서 “정의는 없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한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옳은 일을 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바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직하게 산다 해도 결국엔 나아지는 것이 없을텐데.”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밑바닥 인생일 뿐인데.”

- 방금 폭탄 테러로 희생당한 아이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왔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은 “하필이면 왜 내 아이야? 도대체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 남편을 잃은 한 아주머니가 막 매장을 끝낸 무덤가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슬취한 운전사는 괜찮은데 왜 내 남편이 죽어?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토록 불공평하게만 보이는 세상에서 해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앞의 사례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부당하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부른 슬픈 노래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 성경책의 한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말씀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이라는 옛 노래책의 중에는 진솔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희망으로 차오르기 이전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던 분노와 두려움, 좌절감을 쏟아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편기자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믿음이 위기를 맞았을 때 시편 73편을 썼습니다. 비록 그가 겪었던 일을 세세히 밝히지는 않았

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그의 솔직함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니다. 한동안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느낀 깊은 허무함과 쓰라림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나 아삽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던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삽이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 본 렌즈는 개인의 분노와 혼란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한 고백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그다지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번창하는 것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법칙을 강화하지 않으실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 “응징의 틀”을 통해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행한대로 받는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만큼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잘못된 만큼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원칙은 신약의 갈라디아서 6:7-8에 나오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칙”에 해당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유대 민족은 응징이나 행한대로 받는 원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이 이 세상 삶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원칙이 이 세상 삶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원칙이 때때로 신학적인 사실로 간주되기도 하고, 시편 34편, 37편과 같이 고통 받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에 상관없이 이 원칙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틀이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욥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의해 고난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죄를 숨기고 있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정의가 삶의 현 상황을 -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73편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왜 삶은 불협화음일까요?

아삽이 시편 73편을 쓴 것은 단순히 신학 이론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고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감정 속에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날카로운 의문들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고뇌에 찬 강렬함이 있습니다.

아삽의 갈등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삽의 경험은 우리가 겪은 경험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우리를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과 의를 믿었지만 그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신의 신념과는 어긋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삽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신의 신념과는 어긋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믿음은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 이론들은 고통과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아삽이 좌절한 이유



“인생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즐겨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마치 자동차 백미러와 같은 “회상의 거울”을 통해 볼 때에만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상의 거울”은 우리가 경험해온 일들을 좀 더 의미 있고 분명하게 보도록 해 줍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훈련과 도전은 지나간 20년간의 나의 목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났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기뻐던 일들과 마



음이 아팠던 일들을 돌아켜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을 위해 기초를 놓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종종 회상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생이란 종종 회상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재의 고통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서 있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의심했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본 후 그때서야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1절)

아삽이 갈등을 겪었던 주 원인은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에 관해서는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아삽이 살면서 진실로 믿었던 것들을 말하는 “신앙고백”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삽의 확신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아삽의 생각이 서너가지로 변화하는 단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삽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절망하여 거의 황폐한 상황으로 옮겨간 것으로 봅니다. 아삽의 노래 가운데서 좌절감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들 두 가지 해석과 더불어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경험은 회상의 거울로 본 관점으로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상의 거울은 지나치게 반응했던 자신의 모습을 더 뚜렷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삽의 마음은 갈등으로 인해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영혼을 드러내며 극심한 갈등으로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 했던 아삽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극도의 절망감

아삽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고백하며 양과 껌질을 벗기듯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때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뻔 하였으니(2절)

과거를 뒤돌아보면 얼마나 분명해지는지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삽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쏟아놓았던 불평들은 그럴 듯하고 정당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불평의 실체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위험한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면에 들끓고 있던 생각들을 솔직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
이로다(3절)

아삽의 솔직함은 제 가슴속 깊이 와 닿습니다. 나 자신의 실패를 이 정도로 풀어낼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이 정도로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삽의 자기를 드러내는 뼈를 깎는 고백은 나의 마음을 울렸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솔직하게 다가가도록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삽을 고백하도록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흔히 느끼면서도 좀처럼 인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성공을 자주 그리고 쉽게 질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신앙체계는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직접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잘 사는 것을 보면 “결국”이란 아주 요원해 보일 것입니다.

불공평한 현실

아삽의 내면에서 일어난 갈등은 그의 주변 곳곳에서 보이는 불평등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반면 믿음의 자녀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도 과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반면 믿음의 자녀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몇 해 전 모스크바에서 지내는 동안 러시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가난이 너무 심해서 교사들은 월급 대신 다른 물건으로 거리에서 바꿔 쓸 수 있는 보드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꽤 유명한 한 여의사는 가족에게 먹이기 위해 마당에 채소를 재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외는 아주 대조적으로, 한 번은 라디오 방송에서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부자는 그 지역의 메르세데스 벤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소식

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급차를 살 정도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여전히 많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교사나 의사처럼 훌륭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고급차 주인들은 전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버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삽도 분명하게 불공평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온갖 잘못된 수단을 다 동원해 다른 사람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쥎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4절-9절)

정말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부도덕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원칙 없는 사람들의 행실을 묘사했던 내용을 한질씩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4절) 그들은 인생의 매 순간을 실컷 즐기며 살다가 아주 만족을 느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을 “그들은 육체는 살이 찌고”라고 옮겨 놓은 『새미국표준성경NASB』의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연명하던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는지를 보여 줍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5절) 그들은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고생 따위는 겪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행을 일삼아도 잘사는 자들에게는 걱정할만한 일은 얼씬도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웃이며(6절) 아삽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그 행실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관찰했던 그에게는 남을 억누르고 교만한 자들이 존경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살핌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7절) 아삽은 외관상 보이

는 그들의 부유한 모습을 “비계덩어리에서 눈이 불거져 나오오” (새미국표준성경)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너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8, 9절) 저희가 조롱을 일삼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물질의 부요함보다 사람됨을 더 중히 여기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극심한 악행

아삽이 부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많은 재물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11절)

알렌 로스는 11절 말씀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일에는 관심도 없고 염려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은 현실에서나 존재하고, 그 현실은 영원하리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구나 겪는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4-6절). 그래서 자신들이 보여준 태도와 죄와 조롱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삽의 비관적인 결론

아삽은 불손하고 자기중심적인 자들이 누리는 부와 행복을 지켜보면서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12절)

아삽이 좌절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조롱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불평등과 불공평은 아삽으로 하여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다”(3절)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면 “정말 불공평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삽이 눈앞에 펼쳐지는 불공평한 현실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그런 불공평한 현실에 반응한 방식이었습니다.

아삽의 반응의 문제점



컨트리 뮤직 가수인 페이스 힐은 “불이 꺼지면”이라는 노래를 음반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독,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에는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욕망과 싸우는 알코올 중독자인 바텐더, 한때는 잘 나갔지만 명성이 사라지자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은 할리우드 스타,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현실과 그로 인한 회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삶의 실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영혼에 빈자리가 느

껴지면”이라는 후렴 가사는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가치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줍니다.

“불이 꺼지면 존재하는 건 없어
불이 꺼지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진실뿐이야
일생 동안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불이 꺼지면

이 노래의 가사에는 아삽이 느낀 환멸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삽이 품은 의문들

아삽은 그의 시에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앞에 나온 시와 똑같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3절보다 내면의 솔직함과 인간의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한 성경 구절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13절)

정말 뜻 깊은 말씀입니다! “헛되도다”라는 구절은 전도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절망의 본질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삽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도 쓸모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기울인 온갖 노력이 모두 쓸모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추구해온 것이 쓸모없는 일은 아니었는지 회의에 빠졌습니다.

13절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가치에 대해 자문하며 되돌아보았습니다. 일생동안 아삽은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신실한 삶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절망에 빠져 자신이 추구해온 삶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삽은 포기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에는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일련의 익숙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야구 영화인 『꿈의 구장』은 주인공인 레이 킨셀라가 자기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야구장을 만들면서 그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라는 일은 전부 다 했어!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했어.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것이 뭐지?’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의 친구 조가 “레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라고 물어오자, 킨셀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거야.”

킨셀라의 말은 아삽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13절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굉장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다른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의심이 들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의심이 들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은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만족을 구하려고 두루 찾아다닌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시는 것을 미워하였노니”(전 2:17)

기대가 무너져 허무해지고 실망한 아삽에게 내면의 순결함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영적으로 헌신했지만 과연 그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결국 재앙과 징책뿐이었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14절)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삽의 두려움

아삽이 새로이 깨달은 진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 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쾌활을 행하였으리이다.(15절)

아삽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어졌습니다.(13절, 14절)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아삽은 믿음과 소망을 던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버리려했던 벼랑 끝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깊이 생각했을 때 무언가 천천히 그를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삽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긍정 악장이었으며 또한 작곡가이자 선지자였습니다(대상 16:5; 25:2; 대하 29:30).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찬양과 경배를 주관하는 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었으며,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했던 그가 하나님

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위의 영향력이 컸기에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과 함께 그 지위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담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개의 깃털(The Four Feathers)』이라는 영화는 책임에 따른 무거운 부담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해리 피버샴은 1800년대 말 영국 육군의 젊은 장교입니다. 대영제국에서는 결코 태양이 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젊은이가 영국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그의 가족과 그의 이름에 더 큰 영예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참전한 해리는 그가 속한 연대에서 존중을 받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연대가 수단의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파병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해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투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생각이 그를 두려움으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리는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결정의 영향력은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휩

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들은 비겁함과 불명예를 상징하는 하얀 깃털을 하나씩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약혼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해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외절했습니다. 그가 내린 단 한 번의 선택은 해리의 삶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에 강력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삼도 불신앙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헌신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이 주위 사람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헌신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이 주위 사람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내다 보았습니다.

불신앙의 파급 효과는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드는 물결처럼 밖으로 퍼져나가 그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쫓고 영적으로 낙오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은 그 사람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삽의 책임 의식

아삽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현실과 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분노와 불만을 터트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일을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가 염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궤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5절)

아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게 될 잠재적인 피해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드러내려던 것을 견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있는 아삽의

사고 속으로 참된 지혜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갈등하는 와중에도 아삽은 자신의 끊어오르는 분노와 질투와 의심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피해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별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화나는 일이나 두려움, 의심, 위급한 일들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입니다.

아삽의 침묵하는 고통

아삽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그가 품은 의심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
더니(16절)

아삽은 침묵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감내하려는 그의 시도는 고통만 가득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불공평한 현실 때문에 갈등했고 연약한 믿음과 싸웠던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알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 언제쯤이면 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언제쯤이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 언제쯤이면 이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 언제쯤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삽이 해결책을 찾은 곳



인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낮은 집”이라는 주택수리에 관한 최장수 TV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신설하여 시청자들에게 배관이나 정원 가꾸기, 목공일 및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 편지를 하거나 메일을 보낼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요즈음 아내와 나는 우리의 “낮은 집”을 개조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코너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매체나 수많은 전문가 군단들로부터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나

아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구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삽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곡을 내가 깨달았
나이다(17절)

우리가 얻는 해답의 내용은 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소의 필요성

노트르담의 곱추가 “성소여, 성소여!” 라고 절규하는 외침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노트르담의 곱추 콰시모도는 성소를 안식처이자 피난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삽에게 있어서 성소는 바로 해답을 찾게 해 준 곳이었습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때로는 성소는 회막, 곧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 예배의 처소가 되는 만남의 장막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출 25:8; 36:1,6). 또한 성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역상 6).

성소는 때로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마음속의 생각을 뜻하기도 했습니다(사 8:14). 그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잔잔한 물가”를 기대할 때 간구했던 것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군중과 사역과 제자들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홀로 산에 자주 오르시며 추구하셨던 것입니다.

성소는 영혼의 보호와 안식과 회복을 위해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영적 은신처인 그런 장소가 필요함니다.

아삽의 성소

아삽의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시력이 교정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눈으로 바

라보자 사소한 문제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아삽은 불공평한 현재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에는 이 같은 불평등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아삽은 사소한 문제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로이 클러멘츠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근시안적으로 자기 독단에 빠져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예배는 우리 시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시야의 중심에 계시는 때에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틴테일 구약성경주석』의 저자인 데렉 키드너에 의하면 아삽이 하나님을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자 문제점이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은 영원한 가르침은 무엇이였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갠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17-20절)

처음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무렵, 아삽은 자신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아삽은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다 심히 질투하여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아삽이 그들을 수평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수직적인 위치에서 바라보자, 그들이 아주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삽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함(18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총알도 뚫지 못하고” 시련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흔들리는 땅에 서서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삽은 심판 날에 세워질 그들을 떠올려 보자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보지 못함(19절)

이 “부요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심판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년간 그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처럼 심판 날이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음(20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그들은 그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지혜에 따라 아삽이 믿었던 “보응의 원칙”은 꺾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아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방식대로 공정한 보응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 정하신 때에 보이실 공의를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자기중심적인 불신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심판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실 것입니다.

아삽이 갖게 된 새로운 관점은 그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확실히 축하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불신자들이 미래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삽을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예상치도 않았던 방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의 공의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대신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22, 23절)

예배처소에서 아삽은 자신이 불평을 터트렸던 대상은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아니었고 더더구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아삽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응징하실 주님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신앙의 갈등에 휩싸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안식과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아삽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응징하실 주님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진전 과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 2절에서 아삽은 자기에게 일어날 뻔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 15절에서 그는 자신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행할 뻔 했던 일을 생각해보고 침묵했습니다.
- 21절과 22절에서는 자신의 태도와 행실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자신을 토로하면서 철저하게 솔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 할 수 있다거나 “의분”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새미국표준성경』에서는 심지어 더 강력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산란하다” 대신에 “쓰라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분한 마음을 품었던 죄는 우리들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삼이 품었던 분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아삼의 고통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입힌 상처에서 온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다른 사람이 지금껏 우리에게 해 온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이는 특히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절망의 늪”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그 늪에 빠집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이에 대해 성경 주석가인 제임스 M. 보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삼이 인간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한 것은 그가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하고 무지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8)라고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거나 비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실수도 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미래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현재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의심이 생기면, 미래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은 주님이

시므로 현재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시 생각하게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기록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지혜와 영광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자 그로 하여금 들짐승의 마음과 습성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일곱 해 동안 풀을 뜯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왕에게 제 정신을 되찾게 해주시자 느부갓네살은 진심을 다 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단 4:34-35)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바벨론 왕처럼 아삽도 자신이 주님을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자격을 갖지 못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 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23-24절)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게 되자 주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삽은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

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진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근본임을 확신하며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붙드셨나이다

아삼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그를 엿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 3:5)고 고백했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시편기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리니

아마도 아삼의 가장 경이로운 발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아삼은 자신이 생을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본향에서 사신다는 약속을 꼭 이루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시는 일을 하실 것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신 31:6,8; 히 13:5).

나에게는 모스크바에 사는 타마라 플라토바라는 멋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근근이 생활하면서도 언제나 주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기독교인이 된 그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구주를 따르는 대가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육, 취업, 훈련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국가와 경제체제가 자유무역을 수용해서 차세대 민주주의의 초강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타마라와 같은 시민들의 경제 사정은 독재 체제에 있을 때보다 자유를 누리는 현재가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60대의 그녀는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일주일에 80시간이나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녀가 함께 있을 때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소리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 그분의 존재와 그 분이 주시는 도움과 희망이 삶의 기쁨이 되는 -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듯 보여주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듯이 타마라의 인생은 시편에 나오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아삽이 갈등을 통해 얻은 교훈



시편 73편을 마치는 구절들에서 아삽은 갈등을 겪으면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25-28절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심오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1 원칙: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25절)

아삽은 궁극적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것과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안식을 찾았으며, 주님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2 원칙: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26절)

아삽은 자기 능력에 의지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끊이지 않을 힘을 공급해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3 원칙: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만큼이나 공평하실 것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27절)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3절).

또한 명백하게 불평등한 현실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4-12절).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헛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13절).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창 18:25)라고 말 했던 것처럼 결국 아삽도 현실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주님께서 그 분의 때에 그 분의 지혜에 따라 이 세상의 불공평한 모든 일들을 자비롭고 공평하게 다루시리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4 원칙: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28절)

세상을 심판하고 불의를 의로 바꾸는 일은 아삽의 몫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아삽의 사명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 4:8)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성경적 신학적 진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시련을 겪을 때조차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라는 확신에 찬 신념입니다.

아삽은 결국 믿음으로 이해했고 인정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험을 거쳐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자신이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고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1절)

의심으로 고뇌한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축복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73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오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1, 7, 13, 21절에서 각각 한 번, 26절에서 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 임이요(마 5:8)

아삽은 고통과 눈물, 실패와 실망을 겪으며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성소에서 깨우쳤습니다.

아삽은 고통과 눈물, 실패와 실망을 겪으며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성소에서 깨우쳤습니다. 실제로 아삽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인생의 힘든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빛은 더욱 귀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꽤니 크로스비(1820-1915)가 시력을 잃은 후에도 기쁨, 평화, 천국에 대한 노래를 만들게 한 원동력입니다. 어찌면 그녀가 쓴 수백 개의 찬송가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가장 은혜로운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시련 없이 평탄하고 순
조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만든 찬송이 아닙니다. 어
려운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겪었던 한 여인이 우리 주님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
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주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지도 않
고 공평하시지도 않으며 돌보시지도 않는다고 잘못 판
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집
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
니다. 아삼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
해서 기반이 형성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성소에서 깨닫
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영원을 일상생활 문제
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
획을 우리의 계획에 맞춰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일깨워줍니다. 다이앤 볼이 부른 찬양에서도 말하
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시네,
주님의 때에
주님, 내게 매일 보여주소서
내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고 계실 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계심을
당신의 때에

영생에 대한 답 찾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나 시련이나 실패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갈등이나 마음 아픈 일, 또는 좌절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새로워진 시각이 필요할 때에는 기쁨과 축복의 한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 길에 도움과 위로와 힘주실 동반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동반자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

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5-6)

그가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히 13:5)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표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느낌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분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세우게 하십시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세상이 역경과 시련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혼자 세상과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나라(요 3: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면 아삽
이 성소에서 얻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 당신은 그리스도
가 진실로 당신의 현재 삶을 위하여 또한 영원한 삶을
위하여 도움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 | | |
|---------------------------------------|--------------------------|
|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편) | ⑩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
|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 ⑪ 균형있는 기독교론 |
|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편) | ⑫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
| ④ 복 있는 사람 | ⑬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
| ⑤ 균형 있는 가정생활 | ⑭ 교회 지도자의 자격 |
| ⑥ 왜 살아야 하나?(절편) | ⑮ 갈등 해결의 방법 |
| ⑦ 행복한 결혼생활 | ⑯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
| ⑧ 남자다운 남자(절편) | ⑰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절편) |
| ⑨ 여자다운 여자 | ⑱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
| ⑩ 걱정 없이 살고 싶다 | ⑲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 ⑪ 다시 찾은 사랑 | ⑳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
|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㉑ 인생의 마지막을 이룸답게 맞이하자 |
| ⑬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 ㉒ 금보다 귀한 것 |
| ⑭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 ㉓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
| ⑮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편) | 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
| ⑯ 결혼의 약속(절편) | ㉕ 스트레스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
| ⑰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편) | ㉖ 분노가 타오를 때 |
| | ㉗ 말이 상처가 될 때 |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뒤표지의 헌금 안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원서 및 선교헌금내

회원 및 헌금		회원자 번호		전화																																		
주소																																						
성명		직분		접수자																																		
주소				전화																																		
				H · P																																		
우편번호		부수	월	구독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①신규 ②주소변경 ③부수변경 ④재신청 ⑤취소		헌금입금은행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신청부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